

“용접·접합산업, AI 기반 첨단 제조산업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특별자치시, 국회서 ‘용접특화단지 활성화 포럼’

평동 33만㎡ 특화단지...AX·R&D 기반 강소기업 육성
자동차·가전·조선·해양·에너지 잇는 ‘광역벨트’ 구축도

전남광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접·접합산업을 단순 뿌리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제조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가전산업이 집적된 광주와 조선·해양·에너지산업이 발달한 전남의 산업 기반을 용접·접합기술로 연결하고, 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자치시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 용접특화단지 활성화 포럼’을 열고 용접·접합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특별자치시는 앞서 지난 6월 산업통상부로부터 평동1·2·3차 일만산

업단지 내 약 32만9829㎡를 용접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이번 포럼은 용접·접합 뿌리산업을 AI·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은 물론 전남의 조선·해양·에너지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세현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날 ‘차세대기술의 제조혁신을 통한 AX 용접 특화단지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용접공정의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고도화와 전문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조업 강국들이 국가 주도의 전문연구소를 중심으로 용접·접합기술을 발전시켜 온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용접·접합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남광주특별자치시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 용접특화단지 활성화 포럼’을 열고 용접·접합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안했다.

특히 용접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AI 전환을 추진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용접특화단지를 실질적인 기업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방희선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기반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용접부품제조 협동화센터 등 기업 지원 기반시설 구축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자치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의 자동차·가전산업과 전남의 조선·해양·에너지산업을 연결하는 ‘용접·접합 광역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용접·접합기술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

남의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제조혁신과 용접산업의 AX 전환을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를 강화하고, 용접 특화단지를 퍼지컬 AI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

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영 국회의원은 “용접특화단지가 지역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철저히 기업 수요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며 “특화단지가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전남광주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과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과 신규 국비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뿌리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단지의 성과가 전남광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균택·임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정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종명 목포대 부총장, 이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나용근 뿌리산업진흥회 회장, 오종인 HJ중공업 연구소장, 김경학 LG에너지솔루션 책임연구원, 윤병현 삼표레이블이 연구소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롯데아울렛 수완점, ‘키즈 공간’으로 고객 잡는다

쇼핑에 체험·놀이 결합 아동관 새단장...가족 고객 겨냥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이 아동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키즈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오는 13일 B관 3층 아동관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아동 브랜드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쇼핑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롯데백화점의 자체 키즈 IP인 ‘킨더유니버스(Kinder Universe)’를 매장 공간에 적용한다. 킨더유니버스는 캐릭터를 활용한 공간 연출과 체험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키즈 콘텐츠다.

아동관에는 캐릭터 포토존과 조형물을

활용한 공간이 마련되며 가족 단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조성된다.

기존의 상품 판매 중심 아동 매장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장 기능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키즈 브랜드도 추가됐다. 해외 키즈 편집숍 ‘비스킷’을 비롯해 ‘리고리티’, ‘리(LEE) 키즈’ 등 10여개 브랜드가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마리페 프랑스와 저버’의 키즈 라인인 ‘마리페 키즈’도 지역 아울렛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다. 13일에는 ‘나이키키즈’도 새롭게 문을 연다.

아동 관련 시설을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롯데마트 광주수완점은 지난날 문화

센터를 리뉴얼하고 유아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했다.

이달 6일에는 문화센터 내에 ‘트니트니 플러스’ 광주 직영센터가 문을 열었다.

트니트니 플러스는 영아부터 유아까지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아동관 쇼핑과 문화센터, 놀이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저출생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키즈 매장의 경쟁력을 단순히 브랜드 수나 상품 구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방문 목적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수능 D-100’ 응원 (주)광주신세계는 11일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중력과 기억력, 체력,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제품을 판매한다. ‘정관장’ 매장에서 수험생과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좋은 녹용과 비타민이 풍부한 홍삼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볶은커피 늘고 커피믹스 줄어 스페셜티·저가 커피 동반 성장

국내 커피 소비의 중심축이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에서 원두를 중심으로 한 볶은 커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커피산업과 관련 소비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원두 등을 포함한 ‘볶은 커피’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22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 시장은 연평균 0.5% 감소해 커피 소비의 중심축이 원두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두 품종과 로스팅 방식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맛을 찾는 ‘스페셜티 커피’ 소비자가 늘어났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려는 수요도 확대되면서 저가 커피전문점과 대용량 제품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